

좌판에 막힌 소방로·고장난 비상벨...여전한 화재 위험

서천시장 화재 계기 광주 7개 전통시장 돌아보니

말바우시장 비상소화장치함 쓰레기에 묻히고 개폐기 작동 안돼
남광주시장 스티로폼 쌓아두고 양동시장 LPG가스통 관리 허술

24일 오전 10시께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입구에서부터 비상소화장치함 문을 가로막은 불법 투기 '쓰레기 산'이 눈에 들어왔다. 소방용 호스가 담긴 장비함 또한 문 앞에 인근 점포 상인이 쓰던 손수레가 놓여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시장 곳곳에는 상인들이 쌓아 놓은 불법 투기 쓰레기를 비롯해 불이 옮겨붙기 쉬운 스티로폼 박스, 골판지 상자 등이 쌓여 있었다. 각 점포마다 비치된 소화기에 현수막, 전선 등을 걸어 놓거나 아예 치워 버린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화재 시 연기를 빼내기 위해 설치한 전장·창문 개폐기와 비상벨 등은 아예 누르는 단추가 유실돼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이날 방문한 전통 시장 7곳은 소화 설비가 고장나거나 유실되고 인화성 물질이 시장 곳곳에 방치돼 있는 등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최근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200여곳이 전소되는 대형사고가 났음에도 광주 전통시장에서는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은 시장 한 끝에 목재 팔레트와 스티로폼 박스 등 불에 타기 쉬운 폐기물을 산처럼 쌓아뒀다. 소화기 인근에 좌판을 열거나 쓰레기를 쌓아 두 소화기에 가까이 가지조차 어려운 점포가 많았고, 일부 대피 안내 유도등은 아예 전원이 꺼지지 않았다.

광산구 월곡동 월곡시장은 각 점포에서 통로에 상품들을 늘어놓아 소방차 진입은커녕 통행조차 쉽지 않았으며, 그 중에는 전기 히터와 LPG가스통, 종이상자 등을 한 자리에 두고 사용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태인 점포도 있었다.

양동수산물시장 또한 점포 뒷편에 설치한 LPG가스통 인근에 합지박 등 잡동사리를 쌓아 두고, LPG가스 밸브에 물건을 걸어두는 등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아5일시장 상인 장금순(여·70)씨는 "최근 서천시장도 단 몇 분만에 시장 전체로 불이 번졌다고 하니 상인들도 무섭다"면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지난해 추석 때 대목 남겨놓고 과일가게에 불이 났는데, 불이 순식간에 번져 소화기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상인들이 직접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동수산물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솔직히 소방 대책에는 자신이 없다. 늘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며 "철저하게 예방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으나 상인들도 생업이 바쁘다 보니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시 광산갑)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광주의 전통시장에서는 8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24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의 비상소화장치함 앞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고(왼쪽), 소화기에는 현수막을 걸어두어 비상시 사용이 어렵게 돼 있다.



다치고 877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9건의 화재가 발생해 3억 9092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도 저조하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광주 전체 2599개 전통시장 점포 중 1700곳이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률은 65.4% 수준으로, 전년대 가입률인 65.5%(2613개 점포 중 543곳)에서 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년마다 진행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에서도 광주·전남을 통틀어 소방시설 안전등급 A등급을 받은 전통시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022년에 진행된 점검에서 광주 전통시장 9곳(1011개 점포)과 전남 전통시장 16곳(1367개

점포) 중 광주의 전통시장 5곳은 B등급, 4곳은 C등급을 받았다. 전남은 B등급 8곳, C등급 7곳, D등급 1곳 등이었다.

광주 점포 823곳 중 71곳(8.62%)에 수동식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19곳은 수동식소화기가 불량이었다. 전남은 1031개 점포 중 442곳(42.8%)에 수동식소화기가 없는 상태였으며 28곳은 불량이었다.

자동화소화기는 광주의 경우 무작위 선정된 점포 72곳 중 43곳(59.72%)에만 설치돼 있었고, 전남에서는 71곳 중 24곳에만 설치돼 설치율이 33.80%에 그쳤다.

스프링클러 설비도 부족했다. 광주 326개 점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37곳(42.02%) 뿐이었다. 전남은 199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모두 스

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였다.

또 광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된 경우도 29곳 중 3곳(10.34%) 수준이었으며, 전남은 80곳을 조사한 결과 한 곳도 설치된 경우가 없었다.

LPG, 도시가스 등 가스 사용과 관련 안전점검을 한 결과 광주는 무작위 선정된 점포 165곳 중 87곳만 적합 판정을 받았고, 47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남은 380곳 중 79곳이 부적합이었다.

이용빈 의원은 "꾸준한 시설현대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시장 소상공인은 생계태전을 잃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인 화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채무자 가족에 수십차례 문자 보낸 채권자 항소심서 선고유예

채무자가 구속돼 빚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남편과 친인니에게 수십 차례 독촉문자를 보낸다면 죄가 될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죄가 된다고 판단했지만 양형은 달랐다. A(여·57)씨는 8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에게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지난 2020년 B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B씨의 남편과 친인니에게 18회, 16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자를 보냈다.

A씨가 보낸 문자는 '회사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 '남편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 '집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해달라' 등이다.

A씨는 B씨의 남편과 친인니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B씨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A씨가 연락을 한 시간이 대부분 일과 시간이고 B씨가 주도적으로 채권추심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채무경감을 받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A씨가 상당한 채무를 상환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아 살해 친모들 첫 재판서 '선처호소'

광주지법서 나란히 재판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들이 같은 날 법정에서 재판받았다.

24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의 첫재판이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의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출산 출산한 뒤 집안에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빨리 출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30주 된 아이를 낳았다.

이후 침대에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죽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켰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평소 일하던 노래방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하고 아동학대(유기) 살인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날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 302호에서는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심리로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어머니 B(26)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술에 취한 B씨는 남편과 다투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B씨 측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의 남편도 선처를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스텔 100채 껌투자 전세 사기 70대 구속

나주에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껌투자'로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70대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70대 A씨

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4명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개투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대에서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전세를 내줬다가 임대인 50여명에게 임대차 계

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44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지만, 최근 이 일대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비싸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